

주간 글로벌 철강뉴스(19년 5월 2주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세계철강협회, '19.1분기 및 '19.3월 글로벌 조강생산 전년대비 증가

- '19.1분기 세계 조강생산량은 444백만톤(전년비 4.5%↑), 3월 조강생산량은 155백만톤(4.9%↑)으로 모두 전년비 증가
- 조강생산이 증가한 지역은 북미,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동 등이며 감소한 지역은 EU(28), 터키, CIS, 남미 지역임
-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조강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잉생산 우려도 커지고 있음

◆ '18년 중국 철강기업의 경영실적 및 경쟁력 순위

- '18년 주요 33개 철강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비 38% 증가, 부채비율은 4.1%p 개선
- 실적개선 외에도 기술혁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오우강철그룹이 지난해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으로 선정

◆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운곽 발표

- 지난해 10월부터 7개 품목*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 중인 캐나다가 후판과 STS 강선류에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
- * 열연강판, 후판, 칼라강판, 에너지용강판, 선재, STS 강선류, 철근
- 또한 캐나다와 FTA 협정관계에 있는 한국은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될 예정

◆ 그 외 주요 뉴스

- 미국 US Steel, \$10억 규모 설비투자 계획 발표
- 미국, 과잉 생산으로 HRC 국내가격 16개월 만에 최저가
- 중국 '19년 설비증축으로 열연가격 하향세 전망
- 중국 신우안강철 등 3개사, 말련에 10백만톤 철강 생산단지 조성 예정
- 인도 타타스틸, 조강생산능력 인도로 집중시킬 계획
- 중국 정부, 철강산업에 대한 초저배출 시행의견 발표